



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와 시사점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11월 7일 유럽중앙은행 ECB는 시장의 금리동결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0.5%에서 0.25%로 0.25%p 인하한다고 발표함.

- ECB의 기준금리 인하는 2013년 5월 0.25%p 인하한 후 6개월 만이며, 이는 유로존 디플레이션 우려, 실업률 상승, 유로화 가치 상승 등을 고려한 결정임.
- 그러나 경제상황이 나쁘지 않고 일부 부동산 시장에서 버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독일의 경우 ECB의 금리인하를 반대해 왔고 시장은 독일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ECB의 금리동결을 예상함.
-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ECB의 추가조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반대하는 독일 등 북유럽 국가들과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 간의 갈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.

■ 10월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2009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0.7%를 기록하였고 9월 실업률은 8월과 동일한 12.2%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, 유로화 가치도 상승세를 지속함.

- 2013년 10월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전월의 1.1%에서 0.4%p 하락한 0.7%로 나타났고 이는 2009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.
 - ECB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.0%로 10월 0.7%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, 특히 스페인, 이탈리아 등의 인플레이션은 0.1% 상승에 그치면서 디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확대됨.
- 유로존 실업률은 2013년 1월 12%대를 상회하기 시작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8월과 9월 연속 역대 최고치인 12.2%를 기록하였고 11월 5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(EC)는 2013년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1.2%에서 1.1%로 하향조정함.
- 한편 유로화 가치는 2013년 연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던 7월 1유로 당 1.28달러에서 10월 28일 1.38달러로 7.9% 상승하였으며, 이러한 유로화 가치 상승도 ECB의 금리인하에 영향을 미침.

■ ECB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ECB의 추가조치 가능성도 제기됨.

-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들이 검토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, ECB의 피터 프랫 이사도 필요하다면 은행부문에 추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힘.
- Financial Times는 이번 금리인하가 시작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양적완화 정책, 은행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은행들은 신규 대출을 위한 자본확충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함.

■ 이번 금리인상에 독일 등 북유럽 국가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정책결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임.

- 11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전체 23명의 이사 중 중 독일 2명, 네덜란드, 오스트리아 각 1명의 이사가 금리인하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남.
- 독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5월 ECB의 금리인하 당시에도 독일경제는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, 독일은 이번 금리인하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짐.
 - 지난 10월 독일 중앙은행인 Bundesbank는 독일 주요 대도시 주택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유럽중앙은행의 초저금리 정책 지속으로 인한 독일 내 부동산 버블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냄.
- 독일을 위시한 북유럽 국가들과 경기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 간의 갈등으로 향후 ECB의 정책 결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됨.

■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ECB의 갑작스러운 금리인하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, 선진국의 저금리 기조가 더욱 지속될 것으로 보임.

-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들은 과도한 통화가치 상승을 경계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, 선진국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보험회사들의 저금리 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수 있음.

(Financial Times 등)